2016. 9. 21.(수)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경인일보
2016년 09월 21일 (수)
02면 종합

DMZ생태관광센터 내일개관

체험교육·공연·전시회 진행

경기도는 비무장지대(DMZ) 자연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DMZ생태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 임진각관광단지에 들어선 DMZ생태관광지원센터는 22일 개관한다.

도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총 80억원(국비 40억·도비 40억)을 들여 지난 2014년부터 지상 2층(연면적 2천950㎡) 규모의 센터 건립에 들어가 지난달 완공했다.

DMZ관광센터는 앞으로 DMZ 일원 관광객에게 생태관광을 비롯해 체험교육,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센터 2층에 유치한 '생태계 서비스 파트너십(ESP)' 아시아사무소에서는 세계 생태학자와 환경연구원이 모여 DMZ 자연생태 보전과 발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 센터는 DMZ 관련 소규모 공연이나 전시회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개관식에서는 '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논의하는 포럼과 'ESP 아시아 사무소 비전포럼', 김녕만 작가 특별사진전(DMZ 미공개 사진 50점), DMZ 일원 곤충표본 및 전시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4.9 X 17.9 cm

기호일보
2016년 09월 21일 (수)
06면 경제

DMZ '생태관광지'로 도약

80억 투입 관광센터 내일 개관

경기북부지역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자연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DMZ 생태관광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경기도는 22일 오전 11시부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대 임진각 관광지에서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상 2층, 총면적 2천950㎡ 규모로 건립된 생태관광지원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 도비 40억 원 등 총 80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4년 공사를 시작해 올해 8월 완공됐다.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과 이곳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을 운영한다.

센터 2층에는 ESP(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아시아 사무소를 유치, 전 세계 생태학자 및 환경연구원들과 함께 DMZ의 자연생태에 대한 보전 및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

개관식에서는 김녕만 작가의 특별사진전(DMZ 미공개 사진 50점)과 DMZ 일원에 분포하는 곤충 표본 및 전시회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오후 1시부터는 ESP 아시아 사무소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DMZ 일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한 포럼도 열린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ESP 회원을 대상으로 'ESP 아시아 사무소 비전포럼'을 진행, 아시아 사무소의 비전 및 관계 기관과의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9.9 X 13.4 cm

서울경제

2016년 09월 21일 (수)
31A면 전국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 앞두고 매진행렬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2일 개막을 앞두고 매진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22~29일까지 진행되는 DMZ국제다큐영화제는 36개국 116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된다. 현재까지 티켓을 조기 예약한 관객은 3,500여명으로 14회차 영화까지 매진됐다. 매진된 작품은 싱어송라이터 요조의 추천작 '백만번 산 고양이'(29일, 백석 메가박스)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단편 다큐멘터리를 엮은 '다큐패밀리 1'(28일 백석 매가박스), '다큐패밀리 2'(29일 백석 메가박스) 등이다. /윤종열기자

9.4 X 5.4 cm

경향신문

2016년 09월 21일 (수)
12A면 수도권/제주

파주 DMZ국제다큐영화제 내일 개막

영화를 통해 DMZ를 평화, 생명, 소통의 공간으로 재조명하는 제8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2일 오후 7시 경기 파주시 DMZ 내 옛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에서 개막한다. 경기도는 29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는 국제다큐영화제에 36개국 116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출품돼 상영된다고 20일 밝혔다.

영화는 파주 메가박스 출판도시(23~27일), 일산 메가박스 백석(23~27일),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25일), 김포시 김포아트홀(23~24일) 등 4곳에서 상영한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9.5 X 5.5 cm